

회복과 치유

섬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 친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소식 9월 도약의 달

- 성장과 도약** 개인의 영성이 깊어지며, 한 몸된 교회로 사역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격려하며 기도합니다.
 - 연합예배** 함께 예배드리는 뉴엘림교회를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찬양예배(9/6)**는 샬롬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 노동절 연휴** 휴식의 기간으로 평강을 누리며 내일 오전11시에 주찬양교회와 함께 점심친교를 가집니다.
 - 미국 사회** 미국 대통령선거와 워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 노숙자 사역** 9/15 주일은 다운타운에서 노숙자 사역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배도 오전10시에 현장에서 드립니다.
 - 찬송 이야기 문서전도** 매주 **목요일판 '교차로'**에 복음메시지가 실리고 있습니다.
 - 나눔과 교제** 식사와 함께 친교,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집니다.
- ◆ 구민/구은강, 김훈태/김신실 집사 가정 출타(9/6-13)

주일 예배 기도

9/1 최내권 집사
9/8 박진성 집사
9/15 김훈태 집사
9/22 구은강 집사

주일봉헌 인도

9/1 오정은/김훈태 집사
9/8 최선운/구 민 집사
9/15 박진성/최선운 집사
9/22 오정은/박진성 집사

안내

9월 최내권 집사

9월 사역

연합친교(1) 만남/나눔 주간(1-7) 성장/성숙 주간(8-14) 노숙자 사역(15) 소금/빛 된 주간(15-21) 선교주일(22) 선교주간(22-28)

생일축하

이정운(30)

교우소식

구민경/Ronnie Christian 결혼식 (9/10)

기도제목

- 성장과 열매:** 2024년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목표들이 이뤄지도록
- 영성:** 중보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생명의 예배를 드리도록
- 가정의 기도 제목:** 사역의 회복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 가족:**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 교육사역:** 방학 중 자녀의 영적성장과 단기선교를 위해
- Oikos 사역:** 소그룹 사역으로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 선교지와 선교사:** 네팔/뉴욕(박은주 선교사)
- 이웃 교회들과 연합사역:** 샬롬교회/주찬양교회/찬송이야기 사역

선교소식

선교 소식 (네팔/뉴욕, 박은주 선교사)

- 뉴욕 문화/봉사/기도 센터를 통해 복음을 받아 들이는 이가 늘도록
- 사역팀들이 기쁨 속에 복음을 전하며 지지치 않도록
- 가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맑은 사역에 충성하도록



교회위치 Location



800 E. Palatine Rd., Palatine, IL 60074
847) 691-7846
www.churchofservant.com

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예배 Sunday 12:30 am
중고등부 Sunday 11:30 am
(뉴 라이프 교회 Partner Ministry)
금요찬양예배 Friday 8:00 pm
새벽 경건회 Tue to Fri 6:00 am
Saturday 7:00 am
주일 성경공부 Sunday 11:00 am
주중성경공부(zoom) Tue 8:00 pm
일대일 제자훈련 Monday 10:00 am

2024년 9월 1일

도약의 달
만남과 나눔 주간

삶과 신앙/ 원망이 무서운 이유

소망을 잃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움직이다 휴대폰 어디를 눌렀나 봅니다.

휴대폰 오디오가 갑자기 켜지면서 예전에 저장해두었던 유기성 목사님 설교 중간 부분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종이 아니에요. 우리 왕이세요! 왕을 왕답게 모셔야 합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대했구나...이제까지 도우셨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뤄주시면 실망하고...'

제 태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입으로만 왕이라고 하면서 종처럼 하나님을 대하고....주님 죄송해요.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너무도 놀랍게도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들어도 회복되지 않았던 제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다시 올려드리면서요.

그래서 책 <영의기도> 오할레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시간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를 찾은 정상적인 환자는 먼저 철저히 진찰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을 치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통증을 느낄 때는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일예배 Worship September 1, 2024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 기도 / 최내권 집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여호수아 3:1-17 "함께 함을 알게 되리라"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나눔)	봉헌 오정은/김훈태 집사 ★봉헌찬송 / 213장, 4절 "나의 생명 드리니"
세상과 삶으로	★찬양 /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축복기도 / 유범선 목사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시간 10분 전 휴대폰전화를 끄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 찬양예배

찬양과 기도

성경: 사도행전 15:6-11

묵상 제목: "주 예수님의 은혜로"

